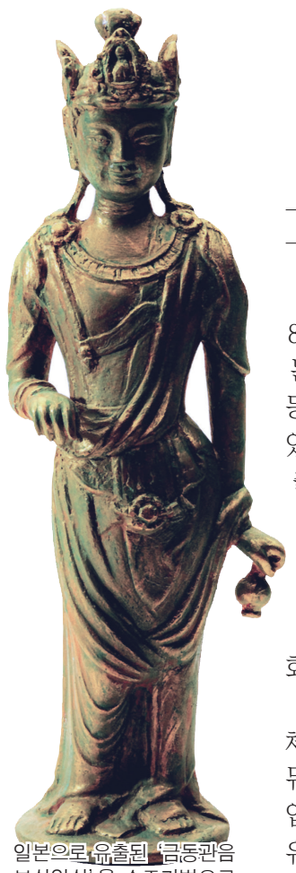
재현으로 만나는 국외 소재 유산



일본으로 유출된 '금동관음보살입상'을 소조기법으로 재현한 영덕 스님의 '소조관음보살입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국외 소재 문화유산은 29개국 801개 처에 25만6000여 점이 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외교나 문화 교류 등의 이유로 외국으로 이전된 유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현대기 무단으로 반출된 것들이다. 특히 사찰에 봉안됐던 성보유산들은 전부 도난 및 무단 반출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 현재 국외에 소장된 한국의 문화유산을 재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6 공·사립·대학 박물관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온(ON) 우리문화유산'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불교미술 연구와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최선일)와 해외로 유출되거나 잊혀진 문화유산을 전통 기법으로 재현하는 장인 모임인 나우회(懶牛會)의 협조로 이뤄진다.

동북아불교미술硏 · 나우회
국외 소재 유산 재현전 개최
문체부 '지역 순회展' 일환
장인 재현 작품 63점 전시
9월 5일까지 이천아트홀서
한국민속극博서 전시 이어져

전시는 8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경기도 이천아트홀 아트갤러리에서,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충남 공주 소재 한국민속극박물관에서 열린다. 전시 작품은 해외에 소장된 원작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나우회 소속 장인들이 전통 기법으로 재현한 작품들과 초대 작가 작품 등 63점이다.



일본 규수 후모지 소장 '고려 금동보살좌상'을 전통 기법으로 재현한 한봉석 장인의 '목조보살좌상'.

특히 국외 소재 불교문화유산들을 재현한 작품이 눈길을 끈다. 영덕 스님은 일본으로 유출된 '금동관음보살입상'과 일본 교토 후지이유린찬 소장 '고구려 원오리소조불상',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철제압출불좌상' 등을 소조 기법으로 정교하게 복원했다. 한봉석 장인은 일본 규수 후모지 소장 '고려 금동보살좌상',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조선 목조동자상' 등을 전통 기법으로 재현했다.

이밖에도 향완, 은자주제, 옥제당초길상문함, 백자항아리, 다완 등 한국의 전통 공예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도 대거 선보인다.

최선일 연구소장은 "이번 전시 작품들은 원작의 형태와 정신을 충실히 재현하는 동시에 우리 문화유산의 예술성과 시대적 가치, 그 안에 담긴 정신세계를 오늘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 연계 특별행사는 8월 13일에 이뤄진다. 오전 10시 개막식과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특별 강연이 이어진다. 강연에는 박진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학예연구부 선임연구원의 '충남 문화유산의 환수 이야기', 최 연구소장의 '일본에서 고향을 수집한 정조문의 삶과 조국애'를 강연한다. 또한 전시 참여 작가인 한봉석 경기도 무형유산 목조각장과 이문희 서울시 무형유산 단청장 이수자가 참여해 국외 소재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전승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시 관계자는 "휴가철을 피해 특별행사를 마련한 만큼 연구자와 무형유산 관계자, 일반 관람객이 더욱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국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미륵사지부터 통도사까지…빛으로 잇다

국가유산청, 8~11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미륵사지부터 통도사까지 다양한 국가유산들을 빛으로 이어내는 미디어아트 행사가 열린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이귀영)과 함께 오는 8월 14일 진주성을 시작으로 11월 8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대표적인 야간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국가유산이 담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대형 외벽 영상인 미디어파사드와 인공지능(AI), 혼합현실(MR),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관람객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개최 규모를 지난해 8개 지역에서 12개 지역으로 확대해 진행된다. 불교문화유산으로는 △익산 미륵사지 △부여 정림사지 △양산 통도사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진주성 △군산 구 군산세관 본관 △경주 대릉원 △강화



지난해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행사 모습.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고려궁지 △철원 노동당사 △아산 이충무공 유허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여수 진남관 등에서 지역 고유의 역사와 장소성을 담아낸 미디어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불교유산 미디어아트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선보여진다.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백제 무왕이 꿈꾼 왕도를 되살리는 '왕도의 시간'을 선보인다. 현존하지 않는 목탑을 높이 30m 규모의 미디어파사드로 구현한 'Reborn: 목탑의 귀환'을 중심으로, 목탑지와 동·서 석탑을 조명·레이저·음악으로 연결해 미륵사지의 옛 위용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부여 정림사지에서는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사비백제 문화의 황금기를 이끈 '박사(博士)'들의 지혜를 조명한다. 관람객은 '현대의 박사'가 되어 AI 융합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건축과 천문, 공예, 음악에 담긴 백제의 지식을 찾아가는 여정을 경험한다.

양산 통도사에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통도, 고요에 이르다'를 주제로 천년 산사가 품은 수행과 고요의 의미를 빛으로 표현한다. 사찰 초입을 중심으로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통도사 전 구역을 무대로 하여, 관람객들이 과거의 인연을 되새기고 온전한 고요에 이르러 마침내 평온을 만개하는 수행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다.

청주에서는 10월 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빛으로 여는 청주의 보물'을 주제로 용두사지 철당간과 망선루, 압각수,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을 하나로 잇는 도심형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로 지역별 대표 국가유산을 활용한 매력적인 야간특화 콘텐츠를 육성하고, 전 세대가 함께 누리는 국가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K-불교 체험할까…'외국인 템플스테이'

문화사업단, 9월 한 달 진행
19개 사찰서…3만원에 이용

K-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가 제공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9월 한 달 동안 한국의 전통불교문화와 산사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외국인 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 19곳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진행된다. 외국인 특별 템플스테이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부담 없이 한국 전통문화와 산사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만원에 제공한다.

참가 예약은 8월 12일 오후 1시부터 템플스테이 공식 영문 홈페이지(eng.templestay.com)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사찰별 모집 인원이 충원되면 예약이 마감된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9월의 산사에서 국적과 언어를 넘어 자신을 돌보며 한국불교의 깊은 멋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무상·연기·자비 담은 전시 열린다

불교미술대전 기획전시
8월 12~26일 불중박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연기·자비를 바탕으로 한 전시회가 열린다.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대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에서 '202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꽃은 홀로 피지 않는다'를 개최한다. 전시 개막식은 8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기획전 '꽃은 홀로 피지 않는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無相)·연기(緣起)·자비(慈悲)를 바탕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예술로 풀어낸다.

전시에는 전통불교 미술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초대작가 21명이 참여해 회화·조각·공예·미디어아트 등 33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전시는 무상, 연기, 자비를 주제로 진행된다. '무상'에는 강신자, 신상철, 신호윤, 안경진, 이혜원, 장줄리앙 푸스, 채승연, 최경락 작가가 '연기'에는 김경미, 김민, 서용, 양선희, 이배경 작가가 '자비'에는 송천 스님, 곽홍찬, 오원배, 원천수, 유현정, 이진경, 최학, 현승조 작가가 참여해 불교미술의 정신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입구의 '순환'과 출구의 '등대', 승려 장인 특별전 '손으로부터' 등으로 잘 알려진 미디어 아트 작가 장줄리앙 푸스가 참여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의 의미를 영상 작품을 통해 조명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 문화부는 "불교미술대전 기획전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